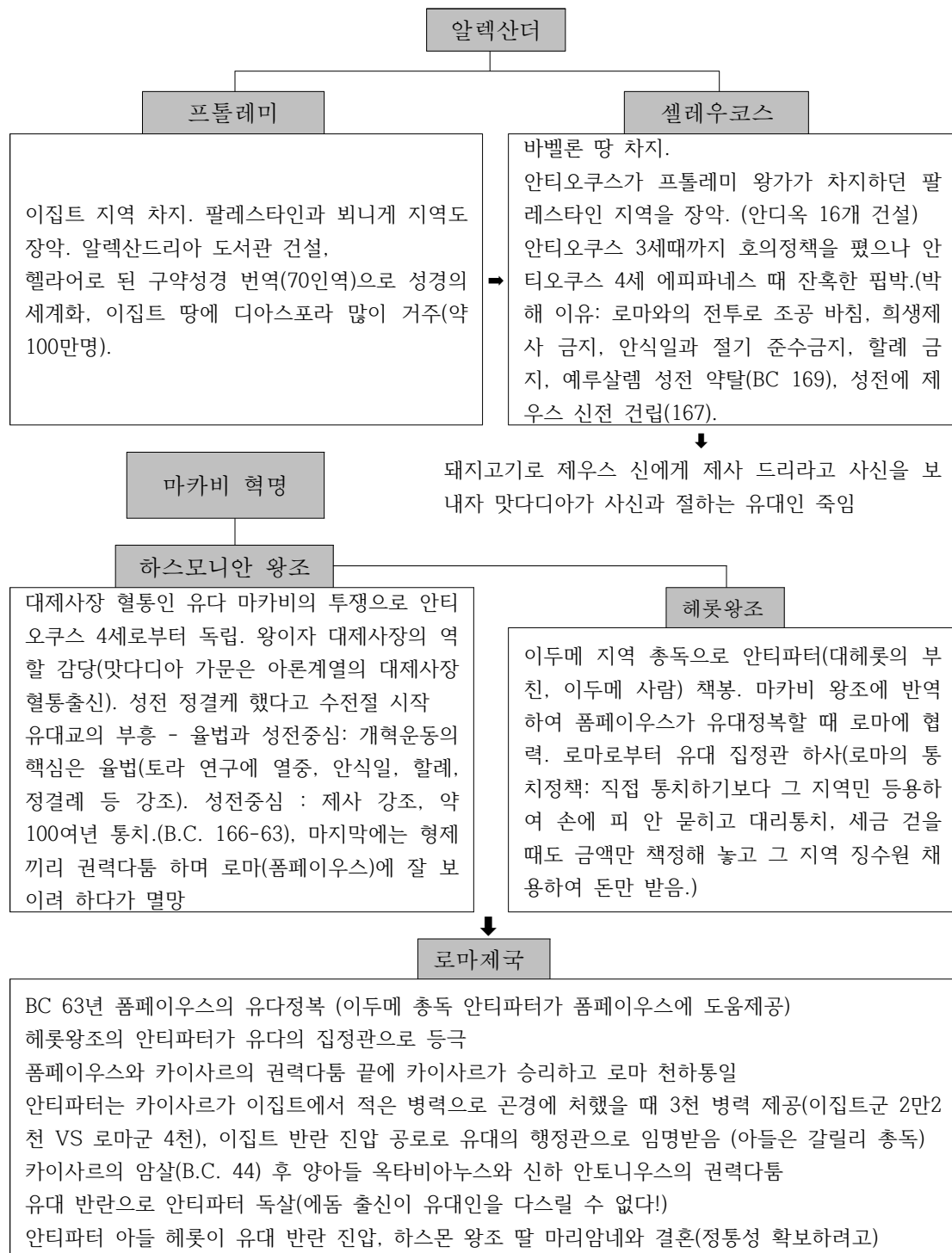




하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와 파르티안의 반란으로 대헤롯 이집트로 피신 (하스몬 왕조 다시 통치)
 헤롯은 로마로 가서 안토니우스에게 거액 뇌물 바치고, 도움을 얻음
 안토니우스의 지원을 받은 대헤롯이 예루살렘성 빼앗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 (B.C. 37-4)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로마의 패권 차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 맹세하여 신임 얻음(헤롯가문의 처세: 폼페이우스→카이사르→안토니우스→옥타비아누스).
 헤롯은 유대를 34년간 통치(권력에 대한 끝없는 집착,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식 살해도 감행)

♠ 신약의 배경 인물과 세력

✦ 헤롯과 관련한 성경 구절

-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행 12:1-2) → 헤롯 아그립바 1세
-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눅 23:6-7) → 헤롯 안티파스
-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행 26:28) → 헤롯 아그립바 2세
-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마 2:1) → 헤롯대왕

✦ 헤롯(Herod)당파

대헤롯	아켈라오	빌립	헤롯 안티파스
- 왕가 기틀 마련 - 헤롯성전건축(건축광) - 메시아 탄생소식을 듣고 유아살해(그 시기에 사망)	- 유대와 사마리아, 에돔지역 통치 - 마 2:22 언급 - 폭압정치로 반란 일어나 로마의 개입 후 실각	- 갈릴리 북동부 통치 - 눅 3:1 언급 - 가이사라 빌립보 건설	- 갈릴리, 베레아 통치 - 예수님 공생애 3년에 등장하는 헤롯 - 세례요한 죽인 자 - 예수심문, 교활한자

* 헤로디아

- 헤롯 빌립1세와 결혼하였으나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
- 세례요한의 비판으로 심기 불편
- 딸 살로메를 통해 세례요한 처형
-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막 6:19-20)

* 헤롯 아그립바

대헤롯(Herod Great)의 형 계열의 왕가의 이름. 예수님 승천 이후 나타남

* 헤롯 아그립바 1세(37-44)

- 대헤롯에게 처형당한 아리스토틔루스 아들
- 로마 황실에서 클라우디우스와 함께 교육받았고 그가 황제로 등극하는데 공헌, 유대 사마리아 통치
-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헤롯
- 낭비벽이 심해 늘 빛에 쫓겨 살다 누나 헤로디아의 도움으로 갈릴리 행정장관 임명
- 술에 취해 매형 안디바 비난하다가 쫓겨남
- 유년시절 보냈던 로마로 건너갔다가 황실 연줄 잡음
- 칼리굴라 변호하다가 감옥행, 칼리굴라 황제 등극하자 아그립바 석방
- 칼리굴라의 난폭한 행동으로 근위대에 의해 암살
- 차기 황제 임명을 두고 권력 암투 이어지던 중 아그립바의 중재로 그의 절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선출
- 클라우디우스가 보답으로 아그립바 영토 확장(유대, 사마리아, 이두매), 로마 집정관 지위 부여
- 경건한 사람인 척 행세하며 유대인의 환심 얻음
- AD 41년 초막절 기념식에 성전 뜰 연단에 올라가서 신 17:14~20 읽다가 눈물
- '왕을 세울 때 이방인 세우지 말라'는 내용이라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눈물 (반쪽 유대인)
- 유대인들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라고 옹호
- 자기 왕국의 이방인 도시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으로 통치(유대인 지역 화폐 형상X,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형상 새겨넣음)
- 유대인의 환심 얻기 위해 사도 야고보 살해, 베드로 투옥
-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행 12:1-2)
- 교만하게 굴다가 벌레에 먹혀 죽음
-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 12:23)
- 요세푸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 잡았다. (중략) 5일간의 복통으로 탈진한 왕은 나이 54세에 즉위한지 7년째가 되는 때에 세상을 떠났다"

* 헤롯 아그립바 2세

- 헤롯 아그립바 1세 아들(AD 50-100)
- 아그립바 1세 죽었을 때 아들의 나이가 어려 로마에서 총독이 다스리게 함
- 성인이 된 후에 갈릴리 분봉왕
-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예루살렘 함락 후 로마의 행정관이 됨
- 베스도 총독 문안하러 가이사랴 갔을 때 거기에서 바울의 간증을 들음
-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행 26:1)

* 신약 시대의 로마 황제

1. 아우구스투스(아구스도, BC 23-AD 14): 로마제국 전역에 호적하라는 명을 내림
 -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눅 2:1)
2. 티베리우스(디베료, 14-37): 세례요한, 예수님 공생애 당시 황제, ‘디베라’의 이름 주인
 -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눅 3:1)
 -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요 21:1)
3. 가이우스(칼리굴라, 37-41): 독단적 정치로 근위대에 암살당함
4. 클라우디우스(글라우디오, 41-54): 바울의 선교 기간 중의 황제,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
 -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행 11:28)
 -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행 18:2)
5. 네로(54-68):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기독교인 박해(1차 박해), 이 시기 바울 순교(계속되는 악행으로 원로원과 왕실의 버림을 받아 자살, 1-5대 로마 첫 왕조 막 내림)
9. 베스파시아누스(아버지, 69-79): AD 70년 예루살렘 함락할 때 처음 지휘관
10. 티투스(장남, 79-81): 아버지 이어받아 예루살렘 함락시킨 지휘관(열병으로 일찍 사망)
11. 도미티아누스(차남, 81-96): AD 90년부터 기독교인 박해(2차 박해),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로마 황제

✦ 총 독

- 식민지에 왕을 대신하여 본국에서 통치권을 주어서 파견하는 관리(대리 통치)
- 아겔라오 실각 후 유대지방은 분봉왕이 다스리지 않고 직접 로마가 총독 파견하여 통치
- 본디오 빌라도(A.D. 26-36):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총독
- 벨릭스(52-60): 바울이 유대인의 장소로 끌려왔을 때 2년간 감금한 총독, 탐욕적이고 잔인한 사람, 유대인들과 잦은 마찰로 네로 황제가 해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행 24:25-26)
- 베스도(60-62):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보낸 총독, 비교적 온건하고 공정한 인물,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행 25:24-25)
-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 바울도 재판 받으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
- 예루살렘에 안토니아 요새에 로마군 상시 주둔
-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행 21:31-32)

✦ 산헤드린 공회

- 71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기관 (제한적인 입법, 행정, 사법부 역할)
- 전 현직 대제사장들, 장로들(귀족대표, 가문대표), 서기관들, 바리새인 등으로 구성

- 대체로 로마 정부에 동조하는 태도
- 사형집행은 할 수 없었음 (요18:31,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경우만 사형 허용)
-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요 18:31)

✦ 대제사장

- 아론 계열의 레위인이 아닌 로마와 헤롯에 의한 임명(성직매매, 권력의 시녀)
- 로마와 헤롯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두개파 사람들을 등용
- 성전에서의 매매와 환전 시세차익 등으로 엄청난 폭리 취함(성전세: 반 세겔, 두로 은화, 순도 높았기 때문에)
- 대제사장 가야바(18-26):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몰아갔고 총독에게 넘겨주었으며, 사도들을 핍박한 인물
-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나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마 26:65-66)
-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행 4:6-7)

✦ 서기관, 율법학자, 랍비

-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필사했던 종교지도자들
- 엄격한 필사 작업: 반드시 원본 보고 기록할 것(기억 의존 금지), 기록할 구절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읽은 후 기록, 각 쪽마다 글자 숫자를 세고, 첫 글자,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 대조, 성경 한 권 다 기록한 후 그 책의 중간 글자가 맞는지, 앞뒤로 글자 숫자가 같은지 대조,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 폐기

-

※ 성경 사본의 신뢰성

- 1947년 쿨란 동굴 발견
- AD 100년 경 작성된 구약 성경 양피지 발견, 훗날 사해 사본으로 불림(건조한 기후, 사람 거의 찾지 않는 곳 보존 유리)
- 쿨란 공동체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사본 기록에 열심)
- AD 10세기 기록된 마소라 사본과 대조해 본 결과 오차가 거의 없음

✦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비교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란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불확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 계급이 위상과 기능 강화되면서 유대 지배층 차지	기원	헬라사상에 물든 하스몬왕조에 반발, 그에 반대한다는 ‘파리시’에 어원. 율법주의 교수.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산헤드린공의회 장악	활동	지방 회당 중심(토라중심, 랍비 중심)

로마정부, 헤롯일파 - 바리새파 견제 수단	무대 지지층	일반 백성들
식민주의자 사적 영역에서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	성격	온건한 민족주의자
문서화된 토라 존중, 문자적 전통고수(토라에 명시되지 않은 부활신앙 거부-현세지향적) 유대 정통신앙과 거리가 멀다	신앙	철저한 율법주의자, 오만과 독선 '천국에 가면 열에 아홉은 바리새인일 것'
성전권력을 세속권력으로 활용 성전 독점매매로 엄청난 폭리 성전세 시세차액으로 폭리, 성전귀족들	끼친 해악	민중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지 못함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 자체에 얽매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짐	이후 역사	오늘날까지 정통유대교의 핵심세력 ¹⁾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공통점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 열심당 (The Zealots)

- 바리새파 중 삼마이 계열의 급진적 민족주의자 (시카리Sicarli: 칼을 품은 자들, 자객)
- 구약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jealousy)으로 우상숭배자 죽인 전통을 계승하여 우상 숭배자와 친로마파 제거하고 순수한 유대공동체 건설에 목숨 바침
-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무장 독립투쟁운동 벌임 (테러리스트)
- 셀롯인 시몬(눅6:15), 바라바(눅23:18)는 열심당원
- 기득권 세력에 적의를 품음 (사두개파, 바리새파 모두 제거 대상으로 인정)
- 예수의 행동 유형이 자신들과 비슷(사두개파, 바리새파 대립)하여 지도자로 추앙 움직임
- 거짓메시아운동²⁾으로 백성들의 지지와 원성을 동시에 샀다 (초기 도덕성 상실하고 포악)
- 1차 유다전쟁 때 멸절되고 온건 바리새파만 살아남아 지금까지 유대교 핵심을 이룸

✦ 에세네파 (The Essenes)- 콤란공동체

- 광야에서 운둔하며 금욕적 공동생활
- 구약사본들(사해사본) 많이 남겨 고고학적으로 큰 역할
- 사해 사본의 발견: 1947년 한 목동이 잃어버린 양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
→ 골동품 상인에게 헐값 넘김 → 히브리 대학 등 학계에서 구입
- 사해 사본의 가치: B.C. 2세기-A.D. 1세기경 기록, A.D. 10세기 기록된 마소라 사본³⁾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일치(사본의 신뢰성 확인)

✦ 예수님 당시 유다백성들

- 1) 예루살렘 함락 당시 존경받는 랍비였던 요한난 벤 자카이는 유대교가 멸절될 것을 염려하여 죽었다 소문을 내고 직접 관에 들어가 성밖으로 탈출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난다. 그 때 그는 '당신은 장차 로마 황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랍비 교육을 할 수 있는 작은 학교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 훗날 실제로 황제가 된 베스파시안이 허락
- 2)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적을 미끼로 민중들을 불러모아 반로마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을 경험한 민중들은 메시아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 3) 구약성경의 표준 문서, 모음이 없어서 점점 읽기 힘들어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붙였다.

- 로마와 헤롯의 이중 착취 구조로 극심한 고통 (메시아 대망 사상 확산)
- 극소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자로 부의 양극화 심각
- 예수님과 제자들은 중간계층으로 보이나 신분은 자유로웠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함
- 율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겼는데 대다수 소작농과 날품팔이, 노예, 창기들에게는 율법 자체를 배울 여유가 없었으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 사두개인들은 갈릴리의 비옥한 땅을 사들이고 원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 (세포리스)
- 갈릴리에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출몰하여 백성을 현혹함
-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민중들의 가난함